**하나님의 주권 아래서
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**

**5/19 월**

**단 4:34-35**
**34** “그날들이 찼을 때,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,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.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.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.
**35** 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‘무얼 하시는 겁니까?’ 할 이가 아무도 없다.

**사 64:8** 그러나 이제 여호와님,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.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.

**사 29:16** 너희는 일들을 뒤집어엎는구나! 토기장이가 진흙처럼 여겨질 수 있느냐?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이에게 “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.” 할 수 있느냐?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“그는 총명이 없다.” 할 수 있느냐?

**계 4:11** “우리의 주님, 우리의 하나님,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.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,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.”

**계 5:13** 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“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”

**엡 1:4-5**
**4** 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
**5** 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.

**5/20 화**

**롬 9:19-21**
**19** 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“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?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?”라고 말할지 모릅니다.
**20** 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?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,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
**21** 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,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?

**출 33:19** 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“내가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, 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.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,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.”

**딤후 2:20-21**
**20** 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,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.
**21** 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,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,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,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.

**엡 2:4**
**4** 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,

**5/21 수**

**마 9:13** 여러분은 가서 ‘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’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.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,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.”

**히 4:16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

**눅 15:20, 22-24**
**20** 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. 아직도 거리가 먼데,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,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.
**22** 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‘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, 손에 반지를 끼우고, 발에 신을 신겨라.
**23** 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.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.

**24** 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,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.’라고 하니,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.

**마 12:7** ‘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.’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,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

**호 6:1** 오라,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.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.

**5/22 목**

**롬 9:15-16**
**15** 하나님께서 모세에게 “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,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.”라고 하셨습니다.
**16** 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,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

**히 4:16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,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.

**벧전 1:3**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.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,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

**벧전 2:10** 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,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.

**신 4:29** 거기서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. 그대가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**사 55:6** 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.

**렘 29:13** 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.

**5/23 금**

**롬 9:18, 23**
**18** 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,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.
**23** 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?

**롬 8:29-30**
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**30** 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,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,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

**롬 9:11** 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(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),

**롬 11:5, 30-32**
**5** 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.
**30** 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,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.
**31** 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,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.
**32** 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.

1. **5/24 토**
2. **엡 2:4-5**
**4** 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,
**5** 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(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)
3. **롬 11:32** 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.
4. **마 9:13** 여러분은 가서 ‘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’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.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,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.”
5. **막 5:19** 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그대의 집,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,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,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.”
6. **딛 3:5** 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,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.
7. **사 45:8** 위에서부터 떨어뜨려라, 하늘들아 구름이 의를 흘러내리게 하고 땅이 열려 구원과 의를 내게 하며 그것들이 함께 솟아나게 하여라.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.”
8. **5/25 주일**
9. **눅 10:25-37**
**25** 보아라,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. “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?”
**26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“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,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?”라고 하시자,
**27** 그가 대답하였다. “‘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,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.’라고 하였습니다.”
**28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그대가 올바로 대답하였습니다. 이것을 실행하십시오.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.”
**29** 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. “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?”
**30** 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. “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,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,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습니다.
**31** 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,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,
**32** 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,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.
**33** 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,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,
**34** 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,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,
10. **35** 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,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‘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.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.’라고 하였는데,
**36** 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?”
**37** 그러자 그가 “그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.”라고 하니,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그대도 가서, 이와 같이 하십시오.”